

30국서 550명 확진...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 예고

WHO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불확실" 방역당국, 감염병 위기 '관심단계'

57세 이상 국민, 두창백신 거의 맞아 접종 안한 44세 이하가 더 취약

정부가 오는 8일까지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코로나19와 같이 '법정감염병 2급'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그동안 원숭이두창 확산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치던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 확산을 경계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현지시각으로 31일 WHO는 성명을 내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원숭이두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 방역당국도 원숭이두창



인천공항 원숭이두창 감염병 안내문. /뉴스시스

확산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접촉자의 격리 필요성은 검토

를 이어가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1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는 30개국, 550명 이상에게서 확진됐다고 WHO가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풍토병 수준이었지만 최근 각국에서 발병하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눔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전세계 각국에서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 바이러스가 한동안 감시망을 뚫고 아프리카 서부와 중부 지역을 벗어났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숭이두창 대비와 관련해 두창 백신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44세 이하가 더 취약하다는 주장이 국내서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두창 백신 접종은 1978년까지 시행됐는데, 57세 이상은 두창 백신을 대부분 맞았지만 44세 이하의 한번도 접종을 안 받았기 때문이다. 원숭이두창은 사람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두창 즉, 천연두와 증상이 비슷하고 두창 백신으로 85%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WHO가 1980년 두창 종식을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관련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두창 면역력이 없는 젊은층이 원숭이두창에도 더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젊은 세대가 더 취약하지만 기존 백신 있어 빠른 대처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mRNA 백신이 개발된 것처럼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잘 되고 방역 대응이 빠르게 된다면 새로운 감염병이 나오더라도 조기 차단을 통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코로나19 방역 경험이 쌓이면서 향후에는 대응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닥터나우, 400억 규모 시리즈B 투자유치

비대면 진료 등 서비스 다각화 계획

국내 1위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4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라운드 투자유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에서 닥터나우의 기업가치는 2000억원 이상으로 평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중 가장 높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현재까지의 누적 투자액은 총 520억원에 달한다.

시리즈B 라운드 투자에는 소프트뱅크벤처스, 새한창업투자, 해시드, 크릿벤처스, 프라이머사제, 미래에셋캐피탈 등 다수의 기존 투자사와 함께 앤파

트너스, 굿위터캐피탈, 스마트스터디벤처스, 스프링벤처스 등 유수의 벤처캐피탈이 새롭게 참여했다.

닥터나우는 이번 투자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의 핵심 의료 부문을 바탕으로, 각종 질환의 예방부터 건강 관리까지 헬스케어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다각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의료에 대한 문턱을 더욱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용자가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쉽게 의료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저변 확대에도 투자할 방침이다.

/원은미 기자

보리보리 "육아정보 공유, 소통 하세요"

'보리 커뮤니티' 정식 오픈 정보 공유·체험공간 구분

유아동 전문물 '보리보리'가 육아 정보와 쇼핑 혜택을 담은 '보리 커뮤니티'를 정식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보리 커뮤니티'는 소비자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LF 보리보리는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립된 사이트를 구축했다. 공식 앱을 통해 보리 커뮤니티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보리 커뮤니티는 ▲게시판 '보리터' ▲키즈모델 콘테스트 '리틀패피' ▲디지털 매거진 'BORI' ▲MD 추천 상품 체험 코너 '신상드림' 등으로 구성됐다. 크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각종 체험 공간으로 구분된다. 먼저 '보리터'는 LF 보리보리 회원이라면 누구



나 이용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다.

생활 속 궁금증부터 너만의 노하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매거진 'BORI'에는 LF 보리보리가 선별한 육아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패션 콘텐츠가 제공된다. 특히 LF 보리보리 협력 브랜드 관계자와 육아 관련 명사의 인터뷰 등이 수록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체험형 공간으로는 '리틀패피' 코너

가 구성됐다.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업로드한 지원자 중 매주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받은 상위 4명을 선정해 최고 30만원의 적립금을 증정한다.

매월 한 달간 가장 큰 반응을 얻은 한 명의 아이에게는 LF 보리보리의 모델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와 50만원 상당의 키즈파티 케이터링 서비스, 기념 액자를 선물할 예정이다.

'신상드림' 코너에서는 LF 보리보리MD가 직접 추천하는 상품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제품을 제공하며, 체험자 중 베스트 후기를 작성한 회원에게는 최대 1만원의 적립금도 증정한다. 이밖에 매주 풍성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임신을 했거나 임신을 준비 중인 회원, 아이가 있는 회원은 물론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통해 다채로운 상품을 증정한다. /원은미 기자

컬리, 아티제 와인 셀프픽업 서비스 확장

컬리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한 아티제 와인 셀프픽업 인기에 힘입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와인 상품군을 확대하고 픽업 가능한 매장 수도 2배 가량 늘렸다.

아티제는 와인 셀프픽업 서비스 확장을 위해 50여 종의 와인을 마켓컬리에 추가 입점시켰다. 대표적으로 고세의 빈티지 샴페인 '고세-그랑 밀레짐

2012'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부르고뉴라 불리는 소노마 지역에서 생산한 '플라워스 소노마 피노누아' 등이 있다.

셀프픽업 서비스가 가능한 와인 종류는 총 250여 종으로 늘었다. 특히 모임, 휴파티 등에서 부담 없이 즐기기에 좋은 스파클링 와인을 다양하게 추가했다. 그동안 와인 셀프픽업의 판매량 2~5위를 스파클링 와인이 차지했다. /김서현 기자 seoh@

한맥, 맥주박 활용 '리너지 크래커' 선포

리하베스트와 협업 푸드 업사이클링

오비맥주의 한맥이 스타트업 리하베스트와 함께 맥주박을 활용한 푸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벌인다고 2일 밝혔다.

한맥은 오비맥주푸드업사이클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맥 리너지 크래커'를 선보인다. 한맥 리너지 크래커는 맥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맥주박을 업사이클링한 '리너지 가루'와 청정지역 제주의 용암해수, 순수 우리밀을 사용해 구워낸 친환경 크래커다. 바삭한 식감과 스파이시향이 가미된 달콤한 맛이 특징이며, 주식회사 제주내떡의 김병구 제빵장이 개발에 참여했다.

해당 제품은 한맥 1.6L 페트병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대상으로 증정품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6월 초부터 전국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만나볼 수 있다.

맥주박을 활용한 리너지 가루는 일반 밀가루 대비 단백질이 2.4배, 식이섬유가 20배 높은 반면, 칼로리는 40% 낮아 밀가루 대체 원료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물 매립 시 발생하는 탄소와 물 사용량을 줄여 환경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실제로 이번 크래커 생산으로 총 550kg의 탄소 배출 저감 및 185톤의 물 사용량 절감 효과를 냈다. /신현선 기자 tree6834@



오늘의 날씨

6월 3일 (금)
음력: 5월 5일

수도권 날씨
19~32°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12 | 해질 / 19:4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CJ온스타일

상품 포장용 비닐테이프 친환경 종이 '전면교체'

CJ온스타일이 배송 상품에 사용되던 비닐 테이프 전체를 종이 테이프로 바꾸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CJ온스타일은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직매입 등 센터 배송 상품 포장재를 비닐에서 친환경 종이 테이프로 바꿔왔다. 이번 전면교체로 비닐 테이프 저장량은 올해만 연간으로 약 660만m, 면적으로는 약 33만m²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들도 친환경 종이 테이프를 사용한 배송 박스는 분리수거 시 비닐 테이프를 따로 제거하고 배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층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CJ온스타일은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비닐 에어캡 대신 종이 완충재, 친환경 보냉 패키지 등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서현 기자